



애브비 소식 > 2015 애브비 소식 > 애브비 소식

애브비 소식

PRESS RELEASE

한국애브비 ‘나눔의 날’, 건강 소외 이웃을 위한 전직원 봉사 펼쳐

June 04, 2015

- 한국애브비, '제 3회 나눔의 날' 맞아 복지시설 찾아 전직원 봉사활동 펼쳐
- 건강 관련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구름빵 인형 만들기, 비누 만들기, 팝아트 초상화 그리기 등 진행

한국애브비는 6월 3일을 '제 3회 애브비 나눔의 날(AbbVie Action Day)'로 정하고 전직원이 함께 건강 관련 소외 이웃들을 찾아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나눔의 날'은 건강 관련 사회 소외 이웃들을 찾아 매년 애브비 전직원이 봉사활동을 펼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애브비 글로벌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가능성 주간(Week of Possibilities)'의 일환으로 한국은 물론 전세계 애브비직원들이 각 국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한국에서는 직원 자원봉사단 '따손'과 함께 가족을 기다리는 아기들과 미혼양육모 가정 아기들을 돕기 위한 구름빵 인형 만들기, 희귀난치성 환우 팝아트 초상화 그리기, 건강 습관을 위한 비누 만들기, 복지시설 장애우 생활환경 개선 지원 등 다채로운 임직원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한국애브비 직원들은 매년 나눔의 날에 방문해 온 홀트일산복지타운을 찾아, 복지타운 내 생활관에 거주하는 장애우들을 위해 위생 관리, 시설 관리, 세탁물 관리, 식사 보조, 산책, 원내 체육 봉사 등을 진행했다. 또한, 판매 수익금을 가족을 기다리는 아기들과 미혼양육모 가정 아기들의 양육기금으로 지원하는 '구름빵' 인형 DIY 키트를 구입, 직원들이 직접 인형을 만들어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개인 위생을 통해 건강한 생활 습관을 돕고자 손 씻는 습관의 중요성에 공감케 하는 허브 비누 만들기도 함께 했다. 이외에도 지난 해에 이어 투병생활로 지친 희귀난치성 질환 환우들의 자존감 향상에 도움이 되는 선명한 색채로 밝은 느낌을 더한 팝아트 초상화 그리기 등을 진행했다.

직원 자원 봉사단 '따손' 회장인 이숙진 차장은, "나눔의 날, 업무 대신 우리 사회 건강 소외 이웃을 위한 시설을 찾아 전직원이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사무실에서 느낄 수 없는 또 다른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며, "나눔을 통해 직원들이 더 큰 감사와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국애브비 대표이사 유희기 사장은, "올해 제3회를 맞는 애브비 나눔의 날, 직원들과 함께 건강 관련 소외 이웃들을 찾아 작지만 봉사를 실천하며 마음을 나눌 수 있어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애브비는 우리 사회 건강한 삶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애브비에 대하여

애브비는 연구 기반의 글로벌 바이오 제약기업으로 2013년 애보트가 두 개의 기업으로 분사되면서 설립됐습니다. 당사의 미션은 전문성, 헌신적인 직원들, 혁신을 향한 독창적인 접근법을 통해 세계적으로 가장 어렵고 심각한 질환들을 치료하는 혁신적인 치료제를 개발해 제공하는 것입니다.

애브비는 자회사인 파마사이클릭스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2만 8천 여명의 직원들과 함께 170여개 국가에서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당사와 직원, 포트폴리오, 약속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www.abbvie.com 을 방문해 주십시오. 트위터 계정@abbvienews 를 팔로우하시거나 페이스북과 링크드인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애브비 (대표이사 유희기)는 서울 본사와 부산, 대구, 광주 등 사무소에 약 100명의 직원들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애브비에 대한 상세 정보는 www.abbvie.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